



2019년 12월 22일(제960호) **대림 제4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복음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혈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 족보이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부끄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살자고 아내를 사촌동생으로 속여 권력자에게 헌납한 아브라함이나 이사악,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 온갖 술수와 배신으로 모략을 일삼았던 야곱,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에게서 후손을 이어간 유다,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기 위해 충직한 부하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던 다윗. 위대한 조상이라 불리던 이들의 치부가 고스란히 담긴 이 족보를 실어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하고 정의로운 품위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셨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복음은 이러한 족보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시게 되었는지 말해줍니다.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드높은 품위를 지니셨음에도 사람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위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지위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 지위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의미를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당신과 똑같이 영원한 행복과 영광

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두려운 분, 정의로운 분으로만 여겨 스스로 멀어졌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고자 당신이 지니신 거룩한 품위마저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두가 불이 나서 대피할 때, 그 대피하는 길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대원들입니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더 이상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현장으로 나아가 갑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시고자 사람들이 일상에서 먹는 양식, 빵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느끼신 다음, 일상으로 돌아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바로 그 자리에 함께해주실 것입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송재원(인드레이) 신부
성요셉(의무사)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이사 7,10-14
- 회답송** ◎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 제 2 독 시** 로마 1,1-7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
- 복 음** 마태 1,18-24
- 영성제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이재행 인드레이



성인명: 이재행 인드레이 (李在行 Andrew)
신분: 순교자
활동연도: 1776-1839년

‘중일’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이재행(李在行) 안드레아(Andrew)는, 충청도 홍주 출신으로 20세가 넘어서야 천주교 교리를 듣고 입교하였다. 본디 성격이 깨끗하고 관대하여 존경을 받았던 그는 신앙을 받아들이자마자 성실하게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고향에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산골에서 은거해 살았다.

1827년에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이 안드레아는 가족을 모아 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교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면서 격려하였다. 포졸들이 그의 집에 들이닥친 것은 경상도 순흥의 곰직이(현, 경북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포졸들이 쳐들어오자 그는 기꺼이 그들을 따라 안동으로 끌려갔다. 안동 관장은 이 안드레아가 끌려오자 천주교 신자임을 확인한 뒤, 혹독한 형벌을 가하면서 배교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깨끗한 목소리로 이를 거부하고는 다음과 같이 신앙을 증언하였다. “천주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사람을 기르시는 가장 높은 아버지이십니다. 착한 일에는 상을 주고 악한 것을 벌하시는 이도 그분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흠송해야 할 본분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저도 그분을 흠송하는 것입니다.”

안동에서 여러 차례 문초와 형벌을 받은 뒤 이 안드레아는 대구로 이송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배교를 강요당하면서 형벌을 받았으나 그의 굳은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후 이 안드레아는 동료들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이재행 안드레아는 1839년 5월 26일(음력 4월 14일)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그때 이를 바라보는 죄수와 옥졸들이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가 보여준 모범적인 모습 때문이었다. 순교 당시 이 안드레아의 나이는 63세였다.

복	음	록	상
---	---	---	---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성탄

이렇게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작고,
 약한 마음 한 곳으로.

상화이야기

본 제단화, 죄후의 심판



<본 제단화, 죄후의 심판> 펼쳐졌을 때

예전에 소개했던 한스 멤링의 최후의 심판과 구성이 비슷하다. 그림 중앙부분의 상단에는 우주를 상징하는 등그런 구에 발을 디디고 무지개 위에 앉아계시며, 오른손 쪽에는 백합과 함께 선한 영혼에게는 축복을, 왼손 쪽에는 칼과 함께 악한 영혼에게는 칼을 내리치시는 손 모양이 그려져 있다. 그 아래에는 공작새 깃털 모양의 날개를 가진 미카엘 대천사가 색을 정의할 수 없는 하늘을 배경으로, 수도복과 비슷한 긴 흰옷을 입고 화려한 걸옷을 두른 채로 영혼들의 무게를 재고 있다. 미카엘 대천사의 복장은 붉은 옷을 입고 심판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4천사 및 검붉은 하늘색과 크게 대조된다.



세부도

중앙의 미카엘 대천사는 상단의 천상의 공간과 하단의 지상의 공간을 모두 넘나드는 유일한 존재이다. 성인들은 상단의 천상에서만 머물며, 하단에는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 그려져 있다. 악한 영혼들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려가고 던져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선한 영혼들은 천상의 공간인 교회로 인도되고 있다. 이 교회의 입구는 매우 작아 한 번에 소수의 인물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내부에는 천상으로 향하는 계단이 그려져 있다.

상상해 본다면, 이 그림은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뿐 아니라, 천상을 뒤흔드는 소음으로 가득 찬 그림이다. 천사들은 나팔을 힘차게 불어대고, 악한 영혼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 병원은 죽음을 앞둔 가망 없는 환자들이 자신의 임종에 대해서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둔 우리들도 회개와 함께 다시 태어나자.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대림 제4주일: 예수대 인생진 신부

◆ 교구장 동정

- 이기자(27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2월 22일(주일)
- 희망대(육군교도소) 성당 성탄 대축일 미사
 때: 12월 25일(수) 10:30

◆ 군중교구 '잇숨 상기대' 단원모집

-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라추를 따르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